

日本 原電의 放射線管理狀況

일본 通産省 資源에너지庁은 9월24일, 80년도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의 被曝狀況과 放射性 폐기물 관리 실태를 정리,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종사자 피폭에서는 原子炉等 規制法에 따르는 연간 5 rem, 또는 3개월 3 rem의 한도를 넘은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 전력회사의 社員 및 都給業者를 합산한 종사자수는 3만 5천954명 (前年度比 5%增加), 이들 종사자의 총피폭선량은 12,932rem, 평균피폭선량은, 사원이 0.21 rem, 도급업자가 0.38rem, 양자 평균은 0.36rem으로 되어 있다.

평균피폭선량을 발전소별로 보면, 配管의 応力腐蝕龜裂対策等 放射線下에서의 작업이 많았던 東京電力의 福島第一原子力発電소가 0.61rem으로 가장 높았고, 日本 原子力発電의 東海発電소가 0.12 rem으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이 0.13rem의 九州電力의 玄海原子力発電所 順으로 되어 있다.

한편, 방사성폐기물중 기체폐기물 및 액체폐기물의 放出量은 모든 원자력발전소에서 放出管理 目標値를 下廻하였다. 이번의 集計에는 금년 4월에 表面化한 日本原子力発電(株)의 敦賀発電所の 일반排出路로부터의 방사능 누설사고에 의한 방출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同庁에서는 이 推定放出量을 포함하더라도 放出管理 目標치를 下廻한다고 한다.

또, 방사성 고체폐기물의 발생량은 1년간에 200ℓ 드럼 換算으로 年計 4만9,804드럼, 누적보관량은 역시 24만5,076드럼에 달하며, 저장설비용량은 약 33만 1,700드럼이 되었다. 6基의 원자로를 갖고있는 東京電力의 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에서는 3월말 현재 드럼 저장설비가 거의 꽉 차게 되었으나 설비확장으로 현재 약 12만4,500드럼의 저장설비용량을 가지며, 다시 10월부터는 약 8천드럼의 새로운 저장설비가 사용가능케 될 예정이므로 당장의 저장능력에는 지장이 없다.

1980年度 各発電所の 被曝과 放射性固体廃棄物の 実態

発電所名	總被曝線量[rem]			放射性固体廃棄物 드럼(注1)	
	社員	都給等	計	發生量	累積保管量
原電・東海	38	182	220	1,335	263
“・東海第二	43	516	559	3,328	(注2) 12,510
“・敦賀	93	772	865	4,177	22,507
東電・福島第一	268	6,145	6,413	21,558	105,447
中電・浜岡	113	1,259	1,372	6,271	31,567
中国電・島根	44	506	550	2,605	14,988
關電・美浜	61	757	817	1,471	18,111
“・高浜	60	949	1,009	3,454	15,935
“・大飯	57	558	614	2,754	9,338
四電・伊方	35	240	275	1,131	5,200
九電・玄海	16	221	238	1,720	9,210
合 計	828	12,105	12,932	49,804	245,076

(注1) 드럼수는 모두 200ℓ드럼수로 환산, 드럼에 채울수 없는大型機材等は 200ℓ드럼에 채울경우에 상당하는 추정개수로 했다.

(注2) 東海発電所로 부터의 반입분(5,442개)을 포함.